

태극전사들 목표는?

“金 10개 목에 걸고 톱 10 들겠다”

베이징올림픽 D-99



13억 중국대륙이 '100년만의 꿈'이라고 부르는 베이징올림픽이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축전인 제29회 베이징하계올림픽은 오는 8월8일 오후 8시 베이징시 북쪽에 위치한 메인스타디움 '궈자타이위장(國家體育場)'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17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하나의 세상, 하나의 꿈(One World, One Dream)'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올림픽은 중국이 명실상부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대회다.

한 차례 유치 실패 끝에 개최권을 획득한 중국은 총 2천 800억위안(한화 약 33조원)을 투자해 '새 둠지(Bird's Nest)'로 불리는 '궈자타이위장'을 비롯해 12개 경기장을 신축했고 12개 경기장은 막바지 증축했으며 선수촌과 메인프레스센터(MPC) 등 45개 올림픽 시설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혼돈속에도 한국은 총 28개 종목 30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수확해 2회 연속 종합 10위 진입을 지상 목표로 잡았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훈련 모토를 내걸고 지난 해부터 올림픽 체제에 돌입한 태릉선수촌은 전통적인 메달밭인 양궁과 태권도에서 각각 2개 이상씩, 펜싱과 레슬링, 역도, 수영, 사격, 탁구, 배드민턴, 유도 등에서도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세계수영의 '기린아'로 성장한 박태환(단국대)이 베이징에서도 금빛 물살을 가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고양시청)이 역대 최종 랭킹에서 필연의 라이벌인 중국 무상상과 펼칠 세계신기록 경쟁도 큰 관심거리다.

지난 연말 올림픽 전문 웹사이트인 '어라운드 더 링스(Around The Rings)'는 베이징올림픽 전망을 통해 한국이 금메달 8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종합 9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태릉선수촌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1-3위를 다투는 가운데 한국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7위인 프랑스, 8위 이탈리아, 10위 영국, 11위 쿠바, 12위 우크라이나 등

과 치열한 10위 경쟁을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세부 종목별로 살펴보면 메달레이스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한국이 1984년 LA 올림픽이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양궁은 최근 월드컵 여자단체 결승전에서 중국에 패하는 등 경쟁국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배드민턴은 오랜 침체를 벗고 울 초코리아오편과 전영오, 스위스오편 등에서 잇따라 정상에 올랐지만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텃새'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또 '마린보이' 박태환도 마이클 펠프스(미국)와 그랜트 해켓(호주)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승부를 나눌 수 없고 펜싱의 경우 기대했던 여자 플뢰레 단체전과 남자 사브르 단체전은 출전 티켓조차 따내지 못했다.

메달 유망종목인 태권도와 유도, 레슬링, 사격, 체조 등은 아직 올림픽 최종예선이 끝나지 않아 운과 좌초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을 따돌리고 종합 1위를 노리는 주최국 중국이 육상과 수영 등 무더기 메달이 걸려있는 기초종목에 약하다 보니 한국의 전략 종목인 탁구와 배드민턴, 사격, 역도 등에서 싸움을 노려 태극전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

된다. 태릉은 '톱 10' 자존심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외국인 코치를 초빙해 기술을 전수받고 종목별 영상 분석장비 구축, 최신 의학장비 구입 등 스포츠 의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텃새를 어떻게 극복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태환 태릉선수촌 운영본부장은 "베이징올림픽은 정말 예측이 힘든 대회다. 각종 선수들이 선전하게 되면 최대 12개의 금메달도 기대되지만 최악의 경우 4개에 불과할 수도 있다"며 심각한 편차를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개막을 불과 99일 앞두고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이 정부와 총לות속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것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체육회장과 사무총장, KOC 총무가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구심점을 잃은 대표선수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각종 체육행정의 부실과 공백은 전반적인 경기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꼭 99일 남은 베이징올림픽은 세계인관단체들의 반발과 중국인들의 민족주의, 유럽 일부 정상들의 개회식 보이콧과 남북체육교류의 침체, 심각하게 우려되는 주최국의 텃새와 국내 체육계 수장의 부재 등 최악의 조건에서도 태극전사들이 종합 10위를 지킬 수 있을 지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개최국 텃새 우려 속

탁구·배드민턴 선전 기대

대한체육회장 공석 변수

中 D-100 행사 다채

중국을 지난달 30일 2008 베이징올림픽 D-100일을 맞아 각종 경축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하루 종일 특별 생방송을 방영하는 등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날 올림픽 'D-100일' 카운트다운 개시를 기념하기 위해 올림픽 기념곡 공개와 1만명 마라톤 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1만명 마라톤 대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주경기장인 국가체육장과 수영경기장 일대에서 13km 구간의 마라톤과 2km 구간

의 일반인 달리기 대회로 나눠 진행했으며 특별방송을 통해 전국에 중계됐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공인체육관에서 '미소 베이징, 환영 D-100일'이란 주제로 베이징 시민들의 가장대회가 열리며 오후 8시에는 베이징 노동인민문화관에서 중국 대표 연예인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베이징올림픽 기념곡 선발대회가 개최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그동안 출품된 곡들을 대상으로 1등 수상곡을 선발해 올림픽 기념곡으로 선정하게 된다. 관영 중앙(CC)TV는 이날 오전부터 뉴스 채널과 올림픽채널을 통해 '우리는 준비가 끝났다'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해외 송출방송 현황, 마라톤대회 중계, 올림픽 기념곡 선발대회까지 하루종일 특집 방송을 마련해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연합뉴스

1만명 마라톤 등 60여개 행사 열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심판의 채점 오류로 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3위에 그친 양태영이 서울 태릉선수촌 철봉에서 기법게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신화통신 등 각 언론사들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도 D-100일 축제를 하루종일 인터넷으로 지상(紙上)중계하고 각종 특집기사를 쏟아내 중국 전체가 본격적인 올림픽 모드로 돌입했음을 방증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크고 작은 행사 60여개나 열렸던 D-365일과 비교해 상당히 조촐한 규모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티베트 사태와 성화 봉송과정에서의 소동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대형 열차 사고 등 올림픽을 앞둔 각종 악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KIA 서재응 '5전6기' 첫 승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재응

'5전 6기, 서재응의 마운드 경험이 시작했다.'

KIA 타이거즈의 서재응이 지난달 29일 감격의 한국 무대 첫 승을 신고했다. 이날 자신의 첫 승은 팀을 3연패에서 구한 1승이기도 했다.

올 시즌 가장 주목을 받은 팀은 단연 KIA였다. '빅 초이' 최희섭이 버티고 있는 타선에 '컨트롤의 마법사' 서재응까지 마운드에 가세하면서 KIA 전력은 탈꼴찌를 넘어 4강 팀으로까지 급부상했다.

서재응의 한국 무대 데뷔전은 지난달 1일 광주 구장에서였다. 개막 2연패, 팀의 연패를 끊고 팀의 첫 승이자 자신의 첫 승을 장식하기 위해 나선 서재응은 6이닝 동안 5피안타 2사사구 3탈삼진 1실점으로 '빅 리거'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하지만 서재응은 패전투수가 됐다. 5안타 6사사구로 11개의 잔투만 남긴 채 단 1점도 뽑지 못한 타선 탓에 팀은 0-3 완봉패를 당했다.

두 번째 등판은 이보다 더 심했다. 8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서재응은 덕 아웃에서 1-2로 팀이 2연패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야만 했다. 팀이 최하위에서 허덕이면서 책임감이 가중된 에이치 서재응도 흔들렸다. 1점대의 평균자책점으로 2경기를 막았던 서재응은 지난달 1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투구 후 소리를 지르는 문제로 최수원 주심의 주의를 받은 데 이어 내야의 미숙한 플레이가 속출해, 3회에만 4실점 하며 또 다시 패를 기록했다. 팀은 6연패에 빠졌다.

팀이 연장 12회말 끝내기 안타로 1승을 챙겼던 지난달 24일 우리 히어로즈를 상대로 한 5번째 등판, 서재응은 또 다시 3루수 이현곤의 실책으로 9피안타 2사사구 3탈삼진으로 4실점(3자책)하고 5회에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서재응과 더불어 유일하게 생존한 선발 윤석민 카드를 무너지면서 팀이 3연패에 빠졌던 지난달 29일 6번째 도전. 모처럼 타선의 지원을 받으며 3-0으로 앞서가던 4

회말 서재응은 '컨트롤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선두타자 오재원에겐 안타를 허용한 뒤, 연속으로 볼넷을 내주며 1사 만루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서재응은 7번 타자 유재웅을 3구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특기인 체인지업으로 8번타자 채상병도 삼진으로 잡아내며 환호성을 질렀다.

자신의 경기에서 공·수 모두 부진했던 이현곤은 2점포로 서재응의 1승에 배가를 박았고, 깔끔한 수비까지 선보였다. 지난달 13일 경기에서 실책이던 실책으로 대량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김선빈은 이종욱의 안타성 타구를 잡아내며 지난 실수를 만회했다. 팀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서재응은 '때가 아니다'며 언론에 말을 아꼈다. 하지만 덕 아웃에서 다양한 표정으로 그라운드 위의 선수들을 가장 열렬하게 응원하는 선수가 서재응이기도 하다.

힘들게 1승을 올린 서재응, 팬들은 '나이스 가이'서재응의 유쾌한 모습을 더 자주 보고 싶다. /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임창용 '미스터 제로'

시즌 6세이브...9경기 9이닝 무실점 쾌투

일본프로야구 진출 첫 해부터 광속구로 선봉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임창용(32·야쿠르트 스왈로스·사진)이 '미스터 제로'라는 새 애칭을 얻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산케이스포츠'는 지난달 30일 인터넷에서 전할 한신전에 등판, 1이닝 동안 최고시속 155km짜리 백지구를 뿜어내며 무실점으로 막아, 4-1 승리를 지킨 임창용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이 신문은 '미스터 제로 완벽하게 막는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6세이브를 올린 임창용이 광속구로 시즌 초반부터 제비군단 마운드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고 평했다.

임창용은 이날까지 9경기에서 9이닝 동안 단 한점도 주지 않아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그는 삼성 시절에는 승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마운드에 오른다고 해 '에니콜', 나오면 지지 않는다고 해 '창용불패'로 통했다.

이 신문은 또 임창용이 뒷문을 확실히 걸어 잡고 있어 야쿠르트 선발진도 안심하고 공을 던진다고 칭찬했다. 다카다 시게루 야쿠르트 감독이 임창용에게 주는 점수도 무척 후하다. '임창용이



개막전부터 쪽 훌륭한 투구를 하고 있다'고 한 다카다 감독은 왼쪽 허벅지 근육통으로 이탈했던 경쟁자 이가라시 료타가 이날부터 1군 엔트리에 복귀했지만 계속 임창용을 불발이 마무리로 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카다 감독은 애초 임창용과 이가라시, 오시모토 다케히코를 트리플 스토퍼로 활용할 생각이었으나 이가라시의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임창용을 불발이 마무리로 기용했고 현재까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베이징올림픽 2차 엔트리 66명에 이름을 올린 임창용은 "대표로 뽑혀 영광이다. 하지만 지금은 야쿠르트 소속으로 정규 시즌에 임하고 있기에 팀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